



# 하늘사랑

www.kma.go.kr Vol.391

2014. January **1**

## 새해 메시지

기상기술을 넘어 행복기술로  
기상기술 개혁의 원년이 되길 바라며

## 맛있는 계절

겨울철 대표 별미 3

## 직장협의회 소식

직원들이 선택한 '달고 싶은 간부'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온누리전자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이 편리해집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전국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전자상품권은 시범시장 230곳을 비롯하여,  
전국 1,100여 개의 가맹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해요!

- BC카드에서 발행한 전자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지결제) [www.onnuri-sijang.com](http://www.onnuri-sijang.com)
  - (우체국쇼핑) <http://escrow.epost.go.kr>
  - (인터파크 비즈마켓) [www.e-jangter.com](http://www.e-jangter.com)
  - (제주전통시장쇼핑몰) [www.market.jeju.kr](http://www.market.jeju.kr)

구매가  
쉬워요!

- BC 법인카드 포인트 구매 안내
  - 적용대상 : BC법인카드 고객
  - 구매처 : IBK 기업은행
  - 적용내용 : BC 법인카드로 온누리 전자상품권 구매 시 법인 포인트로 결제 가능

우리 모두를  
웃게 해요!

- 지류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구매 안내
  - 새마을금고, 신한,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 전자상품권(5만원권, 10만원권, 충전식) 구매 안내
  - 기업은행, 신한, 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BC카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의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정겨운 시장 분위기는 덤입니다!  
※홈페이지 [www.sijanglong.or.kr](http://www.sijanglong.or.kr) 또는 콜센터 1544-4090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January **1**



## Contents

### KMA Special Issue

- 신년 특집 기상기술을 넘어 행복기술로 · 02
- 기상기술 개혁의 원년이 되길 바라며 · 03
- 새내기 덕담 릴레이 · 04
- 정책 탐방 몽골의 찬바람 속에서 느낀 따뜻한 情 · 06
- 맛있는 계절 겨울철 대표 별미 3 · 08

### KMA About

- 열린마당 10년 연속 정보지식인 대회 수상 쾌거 · 10
- 기상청과 함께 내 인생도 반올림 · 12
- 그녀의 멘토라서 행복해요 · 14
- ‘안면도 겨울나기’ 그 차갑고 뜨거운 이야기 · 16
- 국가기상위성센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 · 18
- 철원의 사랑 ‘명품 오대쌀’ · 20
-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겨울캠프 · 22
- 포커스 ‘항공여행’ 출발에서 도착까지 우리의 기상서비스로! · 24
- 2030 솔로탈출 2014, 솔로의 역습이 시작되다 · 26

### KMA Hope

- 직장협의회 소식 직원들이 선택한 ‘맑고 싶은 간부’ · 28
- 날씨만화 난방에너지지수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4년 1월호(통권 391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4년 1월 10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윤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정관영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 새해 메시지

## 기상기술을 넘어 행복기술로

# 2014



고윤화 / 기상청장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이 행복하셨나요?

저는 스스로 '행복'에 대해 물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기상청이 국민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왔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부탄. 그곳은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중시하는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총행복은 교육, 심리적 안정, 건강, 환경의 다양성과 복원력 등을 바탕으로 측정합니다.

물론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기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여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또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기상청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매년 향상되었고,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맞춰 기상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기상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갑오년, 기상청은 창조적인 기상기후정보로 국민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행복을 증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혁신 기업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기상기술력은 국제적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국격을 높입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기상청을 만들기 위해 행정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기상기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기상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척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상기술은 과학적인 결과이지만 행복은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상기술력이 과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2014년에도 따뜻한 봄바람에 기분이 좋아지고, 첫눈 소식에 설레는 소소한 행복들이 자주 찾아오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기상기술 개혁의 원년이 되길 바라며

## 새해 메시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계사년(癸巳年)이 지고 이제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해도 기상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마철에 중부지방의 많은 비와 남부지방의 가뭄을 제외하고는 지난 한 해는 커다란 기상이변이 없었던 덕분도 있지만, 최근 부쩍 높아진 예보적중률로 인해 기상청이 예보에 관한 비교적 덜 시달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면서도 동시에 항상 날씨예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순간에도 정확한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의 기상기술력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향상되었고, 기상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기상기술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단순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기상기술을 단시간에 걸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블랙박스'와 같이 모셔두었던 원천기술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와 해양은 물론이고, 위성에 의해 입체적으로 관측되는 다양한 기상자료의 생산에서부터 이들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치예보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르기까지 얽혀있는 여러 가지 기본 기술들과 수치모델링 기술, 그리고 생산된 자료를 다양하게 가공하여 활용성 있는 정보로 만드는 몇몇 기술 등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 원천기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우리의 모형을 개발하고 예보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로 여겨왔던 이러한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그런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층이 두꺼워져야 할 것입니다.

갑오경장 때문인지 갑오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개혁일 것입니다. 120년이 지난 오해도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새로운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할 때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없다면, 병아리는 알 속에서 도태되고 애벌레는 나비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비록 갑오경장은 연속적 개혁으로 실패했지만, 독자적 기술을 중요시하는 우리 기상인들의 의지라면 기상기술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말의 해인 올해는 예로부터 말이 많다는 제주도에서 국립기상연구소가 새 시대를 여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기상청이 청마(靑馬)와 같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중배 / 한국기상학회장

# 새내기 덕담 릴레이



김동선 / 관측정책과

## 울릉도기상대의 홍석봉 주무관에게

홍 반장님, 울릉도에서의 첫 겨울은 잘 보내고 있나요?  
 벌써 우리가 발령이 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항상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동기들을 이끌어주었던  
 믿음직한 반장님! 올겨울에 울릉도의 많은 눈 때문에  
 고생이 많겠지만, 새해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만큼 새해에도 그 행운이 가득하길 바  
 랐게요. 더욱 더 행복한 2014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홍석봉 / 울릉도기상대

## 보령기상대의 고은지 주무관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지만, 헤어짐이 너무 길  
 어 당신의 모습을 기억으로만 되새기고 있는데요. 오랜만  
 에 사진첩을 넘기며 울여름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보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 밤을 지새우고 있  
 어요. 아, 이제 곧 엄마가 될 거라면서요? 축하해요! 나  
 중에 만날 때 삼촌 노릇 톡톡히 할 테니 기대하세요. 꿈  
 만 같았던 2013년이 그 아름답고 즐거웠던 추억을 간직  
 하며, 2014년도 멋지게 시작하길 바랄게요. 언제나 행  
 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고은지 / 보령기상대

#### 춘천기상대의 조아라 주무관에게

얼굴은 물론 마음까지 예쁜 아라야.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구나. 기상청 입사를 꿈꾸며 공부하다가 평생을 함께할 2013년 동기가 되었지. 언제나 자석처럼 붙어 있었던 우리였는데 떨어져있어 아쉽긴 하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배려 깊고 에너지 넘치는 그 모습으로 춘천기상대의 상큼한 비타민이 될 것으로 믿어. 올해에도 기상대에서 툭툭 쓰는 활력소가 되어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 조아라 / 춘천기상대

#### 전주기상대의 전하리 주무관에게

‘상큼이’ 하리야. 2014년에도 복 많이 받아! 다들 멀리 발령받아서 자주는 못 봤지만, 가끔씩 우리 현업 4조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힐링이 되었어. 전주에서 먹었던 육개장 맛은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생각해보면 2013년은 우리 동기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만큼 소중한 재미있는 추억이 많았어. 새해에도 지금처럼 상큼한 하리로 남아줘. 내년에는 멋진 남자친구도 생기길 바랄게!

### 전하리 / 전주기상대

#### 상주기상대의 한원진 주무관에게

기상청의 ‘아만다 사이프리트’ 인 원진아. 그룹웨어 지방소식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는 상주 기상대의 소식과 너의 사진을 종종 봤어. 네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면서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생기더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널 응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 맞지마! 다가오는 2014년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시간을 만들어보자. Happy New Year!

### 한원진 / 상주기상대

#### 사랑하는 동기들에게

첫 발령을 받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타지에 홀로 떨어져 지내며 느끼는 외로움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힘이되었던 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서 감싸주었던 동기들이었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같이 있는 2013 동기들! 덕분에 지난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지만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한뼘 더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새내기들의 열정으로 올해도 뜨겁게 불태워 봐요! 사랑합니다.



# 몽골의 찬바람 속에서 느낀 따뜻한 情

편집진



몽골기상청 직원, KBS 취재팀, 유목민

## 본격적인 몽골기상청 취재

몽골에서의 이튿날.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몽골의 전경을 촬영하기 위해 승전기념탑을 먼저 찾았는데, 남산 정도 되는 높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바람이 엄청났다. 안경에 낀 김은 금세 얼어버렸고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온몸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몽골의 겨울 추위를 체감한 후, 한국과 몽골 간의 기상협력에 대한 취재를 위해 몽골기상청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세브지드 앙크투브신(Mr. Sevjid Enkhtuvshin) 몽골 기상청장의 인터뷰였다. 앙크투부신 청장은 멀리 지방 출장을 갔다가, 취재를 위해 1,000km를 20시간 동안 달려온 열의를 보여주었다. 무려 13년째 기상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앙크투브신 청장은 역대 한국의 기상청장들을 추억하며, 선진기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몽골기상청과 한국기상청은 슈퍼컴퓨터의 활용, 기상관측자료의 축적 등 각종 사업에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몽골기상청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을 통해 선진화된 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관측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 우여곡절 끝에 만나다

KBS 취재팀과 함께 3시간 30분을 날아 도착한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추위로 얼어버린 기계였다. 수화물을 내리는 기계가 강 추위로 고장이 나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야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취재팀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바로 한국의 교통체증은 저리가라인 수도 울란바토르의 러시아워에 갇힌 것이다.

겨우 약속한 식당에 도착하자, 몽골기상청 차장과 국제협력관, 그리고 한국의 기상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김문옥 자문관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저녁식사와 함께 취재지원 일정을 협의하고 숙소로 향했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였지만, 바람이 불지 않고 습도가 낮아 체감온도가 그다지 낮진 않았다.







몽골 취재 셋째 날. 기상관측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의 자욱한 매연을 뚫고 종모드기상대로 향했다. 먼저 그곳에서 진행되는 주요 관측내용과 함께 인공강우 장비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었다. 사막이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몽골은 인공강우 기술에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기상대 직원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철제 장비를 만지며 시연해주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몽골인의 기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기상대에서는 몽골 유목민을 위해 기상관측장비 한편에 초목을 심어놓고 풀이 자라는 속도, 강설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유목민들이 도시행을 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몽골에서는 유목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초목관측은 기상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 남쪽에 위치한 전통가옥 게르

종모드기상대의 취재를 마치고, 실제 초원에서 기상관측을 하는 유목민을 만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눈 덮인 초원은 점점 낮아지는 고도의 영향을 받아 마른 풀을 드러냈다. 또한, 영하 20도에 육박하던 기온도 서서히 봄기운을 만난 것 마냥 따뜻해졌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 초원 위에 홀로 선 전통가옥 게르를 만날 수 있었다. 게르에는 위성안테나와 태양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모습이였다.

몽골기상청 소속의 유목민은 전통적 유목과 함께 기상장비를 활용한 관측을 통해 드넓은 초원의 기상정보를 전송한다. 이렇게 몽골기상청은 각지에 흩어진 유목민

들의 기상정보들을 모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기술지원 사업이 몽골의 초원 곳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따뜻해지는 것이 두려운 재앙 ‘쇼드’

겨울철 폭설로 풀이 눈에 덮여 가축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 자연재해를 ‘쇼드’라고 한다.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몽골 초원은 기온이 매우 낮게 내려가도 습도가 높지 않아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젠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폭설이 잦아져 발생빈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몽골과의 기상협력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일을 넘어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몽골의 기상현장 취재를 마치며 비슷했던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따뜻했던 몽골인들의 情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해주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취재지원을 해주는 기상청 직원들, 그리고 떠나면 타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김문옥 자문관까지... 한국과 몽골과의 기상협력관계는 단순히 선진기상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몽골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① 승전기념탑에서 바라본 울란바토르 전경  
② 종모드기상대로 가는 길

③ 강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인공강우 장비를 만지는 직원  
④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전통가옥 게르





## 겨울철 대표 별미

# 3

추운 날씨 탓에 활동량이 줄어들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겨울이다. 이러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제철이어서 더 맛있는 보양음식 세 가지를 소개한다.

편집진

### 영양만점 설날 대표 음식 **굴떡국**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아침이면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하게 끓인 떡국을 먹으며 한 해를 시작한다.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은 무병장수와 재물을 기원하는데, 가래떡을 길게 뽑으면서 무병장수를 빌고 동전처럼 잘게 썰면서 재물운을 소망한다.

예전엔 양지머리나 꿩고기 국물을 끓였는데, 요즘은 쇠고기나 닭고기를 주로 사용한다.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이러한 설날 떡국에서 유래됐다. 설날에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떡국이지만 예전엔 날씨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북쪽 지방에서는 쌀농사를 짓기 힘들어 떡국 대신 밀과 메밀로 만든 만둣국을 즐겨 먹고, 쇠고기가 귀한 지방에선 해물을 넣으며, 산간지방은 고기나 버섯을 넣어 먹었다.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만두떡국은 강원도식이고, 충청도에서는 생떡에 미역과 다슬기를 추가해 미역생떡국, 다슬기생떡국을 만들어 먹는다. 전라도에서는 꿩 대신에 닭을 넣은 닭장떡국이 있고, 굴이 풍부한 경상도에서는 시원하고 통통한 굴이 씹히는 굴떡국이 대표적이다. 특히 굴은 한겨울인 1월에 최고의 맛을 내는데, 바닷물이 차가워야 탱탱하게 씹는 맛과 감칠맛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에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영양분이 크게 늘어나기에 ‘바다의 우유’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굴에 다량 함유된 아연은 성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고, 글리코젠은 스테미너 증진에 좋은 에너지원이 된다.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 성장기 아이의 두뇌발달 및 발육에도 도움을 준다.



굴은 껍데기를 까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신선하다. 살은 우윳빛을 띠면서 테두리 빛깔은 선명해야 한다. 영양이 가득한 겨울음식인 굴은 떡국 외에도 굴국밥, 굴전, 굴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 고소함과 바삭한 식감이 일품 씨앗호떡



추운 겨울날 길을 걷다 보면 유혹하는 음식들이 눈에 들어 오기 마련이다. 특히 동그란 모양의 호떡이 노릇노릇 굽는 소리를 내며 입맛을 자극한다. 호떡은 원래 화덕에 굽는 빵이었는데, 연료가 무연탄으로 바뀌면서 유황냄새가 심해져 사라졌다. 이것이 지금과 같이 기름으로 지지는 호떡으로 변한 것이다.

호떡 중에서도 평범함을 거부한 인기스타가 있다. 바로 부산 명물로 손꼽히는 씨앗호떡이다. 원조로 유명한 부산 남포동의 씨앗호떡은 부산여행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별미로도 손꼽히는데, 생긴 것부터가 일반 호떡과 다르다. 일반 호떡의 딱 반 정도의 크기이고 두께는 그 두 배이다.

참쌀 반죽에 흑설탕을 넣어 튀겨낸 호떡의 가운데를 가른 후, 그 안에 견과류를 한 손가락 듬뿍 넣어 만드는 것이 씨앗호떡이다. 호떡을 먼저 익히고 마지막에 씨앗을 넣기 때문에 덜 느끼하고 한결 고소해서 영양 간식으로 도 그만이다.

### 새콤달콤한 겨울 과실 딸기

자연이 정해준 딸기의 제철은 초여름부터였다. 하지만 하우스 농사가 대세를 이루면서 초겨울부터 햇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딸기 품질을 알아본 결과, 겨울철에 생산한 딸기의 단맛이 높고 신맛은 덜해, 가장 이상적인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 이제 딸기의 제철은 겨울이라 할 수 있다.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C는 귤보다 1.5배, 레몬은 2배, 사과는 무려 10배나 많다. 6알을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도 다량 함유돼 있고, 변비와 빈혈 예방에 좋은 펙틴 성분도 있어 매일 공복에 3~5개의 딸기를 먹으면 효과가 탁월하다.

맛있는 딸기를 먹으려면 우선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초록빛을 띠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또한 붉은색이 꼭지 부분까지 물들어 있는 것이 잘 익은 딸기이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가 가장 맛있다. 구입 후 빨리 먹는 것이 좋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할 때 랩을 씌워야 신선한 맛을 유지한다.

10년 연속

# 정보지식인 대회 수상 쾌거



권오용 / 정보통신기술과장

“온라인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넘으면 화면에 경고문이 나오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것을 ‘○○○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 : 섯대우제도)

위는 작년 10월 10일,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열린 「2013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때 나온 문제이다. 이 대회에서 기상청은 기관 부문과, 개인평가 부문 안전행정부장관상을 휩쓸어 10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부기관 중 최장기 연속 수상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견인해 나가는 기관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 〈기상청 역대 수상 실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부문	-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안전행정부 장관
개인부문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정보지식인 대회는 공무원의 IT지식, 최신 트렌드, 국가 정보화 정책 등을 평가하는 ‘정보화 종합지식’, 특정한 현황 또는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 속에서 IT기술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초 사무자동화 처리기능을 평가하는 ‘정보화 정책방향’, IT용어, 또 생활 속의 정보 활용 등 상식 전반을 평가하는 ‘IT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공무원의 정보지식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등 총 102개 기관에서 382명이 참여하였다.



기상청은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를 위해, 자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중앙대회 참가자를 선발하여 개별교육과 집합교육 등 집중적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전과 달리 출제경향이 변경되고 문제도 어려웠음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기관 교육, 전 직원의 정보화 교육 이수 등 각 부서의 정보화 역량 개발을 촉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총 4명의 본선 참가자 중 과장급(4급) 대표였던 홍성대 창원기상대장은 “10월 10일 대회를 목전에 두고 가을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예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창원은 몇 년 전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풍 최접근 시기와 대회일이 겹치게 된다면, 대회 참가가 어려워 기상청의 10년 연속 수상의 기록은 태풍과 함께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대회 바로 전날,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 나감에 따라 부랴부랴 참가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겨우 올라탔는데, 수상의 영광도 안게 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실무자급 대표로 참석한 최원철 주무관은 대회 연습을 위해, 출퇴근길의 지하철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틈틈이 공부하였다. 특히 이번 출제 경향이 자신의 주관에 포함된 보고서 작성 위주로 변경되어 어려웠는데, 전문 IT 교육기관을 통한 반복적인 연습과 개인훈

련을 통해 조금씩 개선해 나갔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세 번째 도전했는데 개인부문 장관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실무자급의 또 다른 대표인 이유나 주무관은 개인적으로 처음 출전하는 중앙대회라 준비도 마음가짐도 많이 부족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상청 대표들과 최신지식을 공유하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혼자서는 알지 못할 많은 것을 배운 것만으로도 참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부터 시작해, 예보부서에서 IT상식과 기술의 접목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등과 자연스럽게 접목되기까지 하여 더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한다.

이번 대회가 보고서형 시험 출제경향이 갑작스레 변경됐음에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상청 대표단 모두가 단순히 이론과 상식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폭넓은 지식을 잘 우려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준 기상청 대표선수들에게 감사와 함께 축하를 보낸다. 2014년에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쫓아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보화 지식 보급에 앞장설 것이다.



# 기상청과 함께 내 인생도 반올림

#



김현주 /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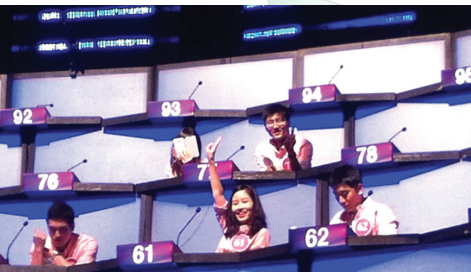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으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예보가 이제 내 가까이 있다. 시린 추위로 가득 찬 강원도의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이유, 바로 뜨거웠던 지난여름이 있어서다. 어제 같기도 하고, 때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 여름은 내 삶에서 가장 뜨겁게 보낸 계절이었다. 낭만과 열정, 그리고 끼를 맘껏 발산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조직적응능력 향상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 버팀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동기들의 얼굴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 것만 같았던 1년 전 그 겨울을 이겨낸 덕분에 작년 초, 항상 꿈꿔왔던 기상청에 입사할 수 있었다. 몇 해 전, 면접까지 치르고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최종 합격 발표날에 엄청 떨렸다. 모니터에서 내 수험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해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국 각지에서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합격 소식을 받은 39명의 동기들이 보라매에 모였다. 모두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 왔기에 마치 소꿉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즐거웠다. 그렇게 금세 다정다감한 친구, 의기투합하는 동료가 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이 2~3주쯤 지났을 무렵, 공동체 훈련을 받게 되었다. 책상에 앉아 강의만 듣다가 같이 몸을 부대끼며 견뎌야 하는 2박 3일의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몸이 됐고,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기로 거듭났다. 그런데 평소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던 내가 낙하훈련 때 타워 꼭대기까지 오르게 됐다. 정말 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뛰어내리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다.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응원의 함성이 없던 용기를 샘솟게 했다.





응원과 격려의 함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두 눈을 딱 감고 뛰어내렸고, 땅에 발이 닿는 순간의 전율이 쾌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나를 위해 한목소리로 응원해주고 같이 눈물 글썽여주는 그들이 있어서 너무나 든든했다. 나의 기상청 생활도 동기들과 함께라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과 같은 응원소리가 들릴 거라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다.

두 달 간의 교육과정이 끝나갈 즈음에 KBS 퀴즈프로그램인 <1대 100>에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 출연이 처음이었지만 기상청이라는 큰 이름 앞에 하나가 된 '올랑말랑' 팀원들이 있었기에 떨리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최후의 8인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쾌거는 동기들의 응원과 기상청 새내기라는 자부심이 안겨준 행운이 분명하다.

하루에 8시간 넘게 강의를 받으면서도 기상학 수업만큼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서천 국립생태원 견학을 통해 기상현상과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조별 발표를 위한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웠으며, 선배님들과 함께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달의 교육이 마무리 되었다. 새내기 기상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상청 일꾼이 되었다는 소속감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이었다.

교육이 끝난 며칠 후, 내게는 낯설기만 한 강릉으로 발

령을 받았다.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한숨 폭 자고 나서도 몇 시간을 더 달려야 겨우 강릉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무실도, 관사도, 거리 풍경도, 너무나도 낯설던 첫날, 한여름 관사의 방은 얼마나 뜨겁던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음 근무를 하는 날엔 잔뜩 긴장하고 머릿속까지 복잡한데, 30분이 멀다하고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에 눈앞이 캄캄해졌던 게 벌써 4개월 전이다. 지금은 매서운 겨울 추위에 맞서고 있다.

이곳 강릉은 지내면 지낼수록 무지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곳곳마다 펼쳐져있고, 시원한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고 있노라면 내가 일하러 온 건지, 휴양을 온 건지 헷갈릴 정도다. 지인들이 그렇게 멀리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을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전국 곳곳에 친구가 생겼고, 광주에서 강릉까지 나의 생활권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나는 전국을 아우르는 마당밭이 된 것이다.

예보과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생산한 예보가 뉴스가 되어 전국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더 보람되게 만든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강원도의 기상특성과 지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일도 무척 즐겁다. 기상청에 들어온 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반올림되는 기분에 즐거운 요즘이다. 나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새해 소망이 반올림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면 한다.

## 그녀의 멘토라서 행복해요

2013년 1월 2일,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던 오후. 마치 새해선물처럼 통영기상대로 그녀가 찾아왔다. 그 이름도 예쁘고 슬기로운 김예슬! 그렇게 예술가와 나의 첫 만남이 두근두근 시작되었다.



서민아 / 통영기상대

올해로 입사 5년차에 접어든 난, 처음 3년 동안은 기상대 막내로 지내야했다. 그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인사이동을 하는 동안 신규자를 맞이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집에서도 막내이다 보니, 더더욱 동생과 후배에 목말랐던 나는 파릇파릇한 신규자의 등장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직장 선배와 학교 선배, 또 인생 선배로서 큰 도움이 되리라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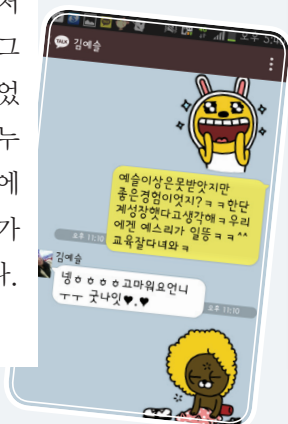


### 두근두근 첫 데이트

6월 17일 첫 데이트날. 통영의 가장 핫한 커피숍에서 나름 꽃단장을 하고 만난 우리는 이런저런 수다와 함께 멘토-멘티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러주었다. "야호~!" 6개월 동안의 알콩달콩한 멘토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 수고했어 & 감사합니다

멘토-멘티 결성 후 처음 부딪힌 숙제. 바로 부산지방기상청 영어경시대회에 예술가가 참가하게 된 것이다. 나도 올진기상대에 첫 발령받고 처음 나갔던 대회가 이 대회였기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첫 멘토링을 해주었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알기에 격려의 SNS를 보냈는데, 예술가가 감사의 의미로 도넛을 전해주었다. 정말 무지 달콤한 선물이었다.



### 통영에서도 뮤지컬 볼 수 있거든?

멘토링이라고 해서 딱딱한 업무만 할소냐! 멘토링 계획서 작성 시, 업무능력 향상과 문화감성 충전을 적절히 분배한 우리는 문화적 불모지인 통영에서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연극과 뮤지컬 관람을 미리 계획해 놓았다. 7월엔 연극 '코발트 블루', 10월엔 뮤지컬 '레미제라블' 감상으로 우리의 가슴에도 축축한 감수성 100% 충전!





###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멘티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멘토의 마음이다. 이제 현업근무가 제법 익숙해진 예슬이에게 문서 기안, 회계 등 현업하면서 배우기 힘든 업무들을 나만의 'Top Secret Note'를 통해 전수하였다. (사실 나도 아직 서무 초보인 상태지만...^^;) 그 후, 주어진 문서기안 미션을 '멘토 ARS 전화찬스' 1회 사용 후 완벽히 해낸 멘티! 너무나도 뿌듯한 순간이었다.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자들의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라는 공통 고민을 갖고 있던 멘토와 멘티~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기상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살살살'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다짐했건만... 너무 친해져버린 우린 맛집 탐방에 심취하여 오히려 인생의 짐을 더 얻었다는 후문이...ㅠㅠ 마음의 양식도 튼튼히 하기 위해 우리는 토익시험에 응시하기로 했다. 토익시험이 약 10년만인 멘토와 4년만인 멘티는 거제시까지 원정시험도 불사하였다. 오랜만의 시험이라는 기분 좋은 설렘도 잠시, 3시간 동안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음날까지 아픈 목을 부여잡아야 했다.



### 단언컨대, 우리는 환상의 짝꿍

순탄한 멘토링 중, 우리 둘에게 특명이 내려졌다. 바로 '제2회 슈퍼스타 BRMA'에 출전하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매일 저녁 아이디어 회의까지 열어가며 불철주야 연습에 매진하였다. 나는 PD로 변신하여 음악편집, 안무구상, 대본 집필 등에 열중했다. 예슬이는 New Face PR Time에 선보일 자기소개 프로필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수상과 New Face상까지 2관왕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 Mentoring을 넘어 Mantoring까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생각으로 멘토링에 임했던 나. 멘티 예슬이에게 직장선배일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었기에 'Men'토링을 넘어 'Man'토링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좋은 신랑감 고르기', '나쁜 남자 구별법' 등 멘토가 알고 있는 얇은 연애지식이나마 탈탈 털어 전수하였다. 예슬이에게 딱 맞는 좋은 남자가 보이면 이 멘토가 기필코 보쌌해드리리!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멘토링을 통해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나 역시도 신규자의 활기와 패기 덕분에 좀 더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멘티인 예슬이에게 평생의 반려자(?)가 아닌 '평생살이 멘토'로서 함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숙히 맹세하는 바이다. 예슬이도 함께 할 거지? ㅋㅋ! ^^

# ‘안면도 겨울나기’ 그 차갑고 뜨거운 이야기

‘운칠기삼(運七技三)’은 운이 7할이고 재주(노력)가 3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있어 노력보다는 운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생칠사삼(生七事三)’은 생존을 위한 생활이 7할이고 일이 3할이라는 뜻인데, 기후변화감시센터로 부임 받은 21세기 센터장에게서 유래된 말로 ‘안면도 겨울나기’에서 그 태생을 엿볼 수 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있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매년 겨울이 되면 북서바람과 칠혹 같이 짙은 어둠이 이곳을 찾아온다. 이런 겨울과 잘 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새내기들의 ‘생칠’이야기와 그에 꼭 맞는 아이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10월에 새 식구가 된 ‘해피스마일’ 허복행 센터장의 생존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그는 안면도의 맑은 공기를 만끽하며 입성한 첫 대면식 날, 친환경을 표방하며 자전거 출퇴근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거센 찬바람과 오후 6시도 되기 전부터 찾아오는 어둠으로 인해 봄으로 연기해야만 했다.



이정미 / 기후변화감시센터



하루 일과를 끝낸 조금 늦은 저녁. 사무실로부터 12km 떨어진 관사에서 처음 만난 건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었다. 카시오펜이아, 북두칠성, 오리온 등 낭만적인 별이야기를 나누다 쉬러 들어간 관사에서는 유난히도 많은 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밖보다 관사 안의 온도가 더 낮은 신비한 경험을 비롯해, 간헐적으로 터지는 핸드폰과 제한적인 텔레비전 채널이라는 기이한 체험까지 21세기에 겪어야 했다.





추위에 웅크린 밤을 며칠간 보내면서 약해진 면역력은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찾아왔다. 몇 주간의 병원 들락거림으로 조금씩 회복해가는 체력과 함께 안면도에서의 겨울나기를 위한 생존필수품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생전 처음, 생존을 위해 챙겨 입은 극세사 깔맞춤 수면복과 방안의 찬 공기를 그나마 진정시켜주는 열풍기, 또한 너무도 유명한 뽕뽕이와 문풍지로 여기저기 찾아오는 찬바람을 막으며 그는 여전히 안면도에서 생철사삼하고 있다.

이어 겨울이 시작될 무렵엔 이철규 연구관이 새로운 식구로 들어왔다. 캠핑용 침낭 2개를 준비한 그는 처음 관사로 가는 길에서 여유만만한 웃음을 지었다. 대전의 한 시골에서 자라나 웬만한 환경에는 익숙하며 자신하던 큰 목소리는 어느새 관사 주변의 장엄한 어둠에 그만 파묻히고 말았다. 눈발 한가운데에 어둠과 함께 자리한 관사. 이젠 그도 출근길에 만나 나누는 우리들의 아침인사인 “지난밤에는 따뜻했나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넨다. 어느새 침낭은 전기장판과 이불로 바뀌었고, 온돌이 아닌 냉돌에 적응하기 위해 유아 있는 집에만 있는 매트도 깔았다. 겨울철엔 냉장고가 특별히 필요 없는 관사다 보니, 집들이 선물로 따뜻한 국물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양은냄비를 전달하였다.

한반도 ‘대설의 대설’인 서해안 대설을 지난 12월 밤에 만났다. 정말 걸어서 관사까지 가는 퇴근길은 또 하나의 생철 현장이었다. 그래도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긴 밤을 보내야 하는 안면도의 생철삼사에도 네 살배기 아이의 효도처럼 예쁜 것들이 있다. 안면도의 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15,000원의 선물. 진입로부터 환영해주는 반짝반짝한 트리와 케이크 하나로 모두 즐거운 얼굴이 되는 날들에는 7할이 금세 행복으로 채워진다.

생철사삼의 공간에서 운철기삼도 하는 2014년, 안면도의 겨울나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 국가기상위성센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보니 소중한 가치들을 종종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에서의 소중한 가치, 삶의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이다. 이제 기업들은 가족의 마음을 얻어야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위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제'를 시행하여 가족을 위한 제도와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과 기관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12월,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세 번째로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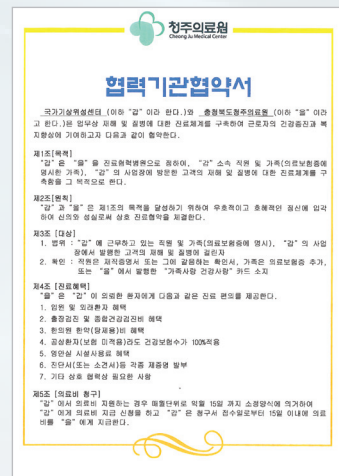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올해로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신생기관이다. 충북 진천군에 자리 잡은 기상청의 위성 분야 전담기관으로 기상과 위성, 정보통신의 전문가들이 기상 위성을 통한 자료처리 업무에 여념이 없다. 집행기관이지만 마치 연구기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연구 인력의 비중이 높고, 매년 산출되는 연구 성과물의 양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업무 또한 센터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어떻게 '가족친화 우수기관'이 됐을까?

## ■ 자유로운 탄력근무제도, 단 한 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금요일 오후 4시, 위성센터 직원들 대부분은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 선택제를 이용하여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 탄력근무제도가 보급되긴 했지만, 상사의 눈치와 직장분위기 등을 이유로 자유롭게 이 제도를 이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지방에 위치한 탓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또는 다른 지방에 있는 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주말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만큼은 진정한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직원들의 목적지는 제각각이지만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가볍기만 하다.



김종우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김준형 / 철원기상대

## 철원의 자랑 ‘명품 오대쌀’

“ 식사하셨어요? ”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녕하세요?”만큼 많이 듣는 말이다.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시절에 습관적으로 묻던 질문이 인사처럼 일상화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사는 곧 밥을 의미하고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다. 이처럼 밥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민족 역사에 쌀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일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 1972년에 보급된 통일벼가 자급자족의 시작이었고, 그 벼는 기존의 수확량보다 월등히 많았다. 여기에 농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여 쌀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1992년엔 밥맛이 떨어지는 통일벼가 퇴출되기 시작했다. 양보다는 질이라고 했던가. 이때부터 쌀은 ‘얼마나 많이 먹냐’가 아닌 ‘얼마나 맛있느냐’로 판도가 바뀌었다.

철원오대쌀에서 ‘철원’은 지역명이고 ‘오대’는 벼의 품종을 의미한다. 오대벼는 1982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냉해에 강하고 재배시기가 짧게 개량되었다. 이는 겨울철에 기온이 상당히 낮고 일교차가 큰 철원지역이 오대쌀 재배의 최적지란 것을 의미한다. 강원도 전체 쌀 생산량의 6분의 1 이상이 철원군에서 생산되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고가에 팔리는 것이 오대 품종의 쌀이다. 철원군 관내 식당에서 오대쌀을 쓰지 않으면 오던 손님도 끊길 정도이며, 반들반들 윤기 나는 오대쌀 밥맛은 과연 일품이다.

철원에서 ‘철(鐵)’은 검은색을 띠는 쇠를, ‘원(原)’은 넓은 평원을 의미한다. 철원에 와보면 땅이 대부분 검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땅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 때문이다. 철원 한탄강에는 화산 분출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한라산이나



오대쌀 기상지원 간담회



철원 오대쌀 벼베기



백두산처럼 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산 분출이 아니라, 지각이 벌어진 틈을 타 서서히 흘러나온 것이다. 이 용암이 철원, 연천의 용암지대를 만든 것인데, 덕분에 철원은 드넓은 곡창지대를 가지게 되었고 남한 4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꼽힌다.

철원은 한탄강이 넓은 평야를 가운데 두고 흐르고 있어서, 벼농사에 필요한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준다. 또한 광활한 용암대지는 표면의 현무암층 하부에 위치한 화강암층이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위쪽 현무암층이 얇게 구성되어 있어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기에 벼농사에 최적화된 곳이다.

이러한 기름진 황토, 풍부한 물 등으로만 오대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의 ‘명품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 바로 철원오대쌀이다. 이와 더불어 철원기상대는 오대쌀 재배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량 증가로 농민의 소득 향상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철원군청, 철원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역특화 기상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이 예상될 때, 수시로 철원 관내 이장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또한 모내기 전부터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매달 발표되는 장기 기상전망, 강수, 기온, 일조량 등의 기후자료를 철원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에 제공하여 벼 생육에 필요한 자료를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기상정보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농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기상지원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이례 없는 장기간의 강수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그 전보다 수확량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철원기상대와 관련기관들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여, 가을들판이 황금물결을 이뤄 흐뭇해하는 그들의 미소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겨울캠프



박지연 / '행동하는 양심' 간사

자원봉사단체 '행동하는 양심(이하 행심)'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아이들과 캠프를 떠난다. 보육원과 미혼모가정 등 소외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 어린이와 봉사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 캠프는 재미난 레크리에이션과 신나는 계절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여름엔 물놀이, 겨울엔 눈썰매 타기가 최고 인기다. 행사를 개최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 이전 참여했던 어린이가 봉사자가 되어 나누는 기쁨을 이어가기도 한다.

캠프에는 결연을 맺은 봉사자와 함께 스태프가 참여한다. 결연 봉사자는 아이들과 한 명씩 짝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스태프를 맡은 봉사자는 캠프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준비와 안전, 그리고 식사를 도맡는다. 배식팀은 100인분 이상의 어마어마한 식사를 준비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는 프로그램팀은 넓은 강당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모든 일정을 소화한다. 안전팀은 의료와 인솔 등을 담당하고, 영상지원팀은 사진과 영상으로 추억을 담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캠프 시작 모임



겨울캠프 단체사진

여름캠프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캠프 첫날, 우선 전체 참여자들이 강당에 모여 짝을 맺고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선생님 이름은 김섯별인데 네 이름은 뭐니?” 아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만 지었다. 맛있게 점심식사를 한 뒤엔 안전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준비운동을 하고 수영장에 침범침범 빠져들었다. 아이들은 장난기가 발동해 결연봉사자들을 물에 빠뜨렸는데, 결연봉사자들도 이에 응수하여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었다. 이렇게 물놀이가 진행될수록 그들 사이의 어색함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그런데 문제는 물놀이를 한 후 발생했다. 각자 숙소로 돌아갔는데, 봉사자 한 명이 스태프 본부로 다급하게 찾아왔다. “수업이 너무 약한지 물이 잘 안 나와서 아이들을 씻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 씻을 사람이 많은데 난감한 상황이었다. 결국 조금씩 인원을 나눠서 씻어야 했는데, 불평 없이 차례를 기다려준 봉사자들 덕분에 아이들이 먼저 씻을 수 있었다. 봉사자들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물놀이



캠프파이어

해가 저물 무렵엔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렸다. 바로 핵심의 소모임 밴드인 '행울림'의 연주였다. 사람들은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여름 밤의 멋진 연주에 더위도 금세 잊을 수 있었다. 이어 캠프파이어도 시작됐는데, 아이들과 결연봉사자들은 예쁜 불꽃을 보며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각 반마다 아이들과 봉사자가 서로에게 줄 편지를 썼다. 그중에서 자신의 편지를 낭독한 한 아이의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푹푹 떨어졌다. "선생님, 짝은 시간이었지만, 잘 보살펴주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이의 결연봉사자는 아이의 마음에 감동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내 아이에게 다가가 꼬옥 안아주었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였는데, 봉사자의 보살핌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여름을 보내고, 이제 다시 겨울캠ป์를 맞이할 때가 다가왔다. 이번 제25차 캠프는 오는 2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파주의 한 캠프장에서 진행된다. 안정상의 이유로 1:1 결연이 된 어린이만 캠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많은 봉사자들이 신청해야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뜻깊은 방학과 휴가를 보내고 싶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www.actionslove.or.kr](http://www.actionslov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름캠ป์ 때 장마로 인해 비를 맞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옷이 젖은 불편함도 잠시, 비를 맞으며 뛰어노는 재미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겨울캠ป์ 맨 눈이 녹아 눈썰매를 못 타기도 했고, 조류독감으로 행사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사자들이 만들어가는 1박 2일의 시간은 짧지만 행복한 추억으로 서로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눈썰매

'행동하는 양심'은 2001년 인터넷 자원봉사모임을 시작으로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알려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을 나누는 곳이다. 단체는 국가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순수자원봉사단체이다. 현재 회원은 약 10만 명으로 국내엔 20여 개의 봉사팀이 있고, 해외엔 필리핀과 캄보디아 지부를 운영 중이다.

# ‘항공여행’



## 출발에서 도착까지 우리의 기상서비스로!



이승주 /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



### ◆ 날씨와 항공기 운항

날씨는 항공기 운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세계에서 항공기 운항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10년간 약 2만여 건의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있었으며, 사고원인 분석 결과 최소 20% 이상은 날씨가 직접적인 영향이었다고. 사실 국내공항에서도 자연운항, 결항 등 비정상 운항원인의 약 60%가 최근 5년 통계(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의하면 날씨 탓으로 분석된다. 잘 알다시피 항공사고는 흔히 접하게 되는 육상 사고에 비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2002년 김해공항에 착륙하다가 위험기상으로 인해 추락했던 중국항공기 사고의 경우, 128명의 사망자와 약 5,000억 원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 ◆ 맞춤형 항공기상정보를 찾는 수요자

출장과 여행으로 공항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항공기도 모든 점검을 마치고 출발 대기 중이며, 이 무렵 운항관계자는 더욱 바빠지기 시작한다. 도착공항의 기상상황은 어떤지, 경유하는 항로상에 위험기상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또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이 착륙해도 좋은 기상상황일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체공항의 기상은 어떠한지 등...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 국내외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외국 민간사업자로부터 제공된 기상정보를 참고하기도 한다. 우리가 열심히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가 수요자 중심, 국민 중심의 서비스보다는 업무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 공백을 외국 민간사업자에게 잠식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하는 지역이 어디든, 이륙에서 착륙까지 우리의 기상정보를 서비스해보자고.

### ◆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 개발의 시작이었다. 어찌 보면 외국 항공기상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술력을 확보해 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소통을 통해 창출되었다.

이에 ① 기상청에서는 전 세계 항공기상정보의 수집 및 독자 공항기상예측모델 생산 등 다양한 기상정보를 처리하고, ② 항공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륙·착륙하는 수백편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③ 7개 국적항공사에서는 자사 항공편에 대한 상세 비행스케줄을 공유하고, ④ 공항당국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항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항공기상청 서버에 체계적이고 통합된 형태의 정보로 융합하여 단일 데이터베이스화시켰다. 그 결과, 비행편만 입력하면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손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국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기상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0여 주요 취항 공항에 대한 기상예측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기상정보는 완전한 항공운항의 필수요소!  
क्या आप भी इनके बिना नहीं चलेंगे?

비행편(KE123, OZ456등)만 입력하세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필요한 기상정보가 바로바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운항기상지원 검색 시스템이 출발, 도착, 대체공항, 항로상의 현재날씨와 예측정보를 초간편 초고속으로 제공합니다.

아직! 아무리 맑아도, 여행지 날씨가 궁금! 어떻게?

항공기상정보도 신토불이!  
비행기는 이륙도, 착륙도 기상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주요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개도국 공항까지 전세계 200개 공항의 날씨정보를 알려줍니다.

약 6개월에 걸쳐 추진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는 '글로벌 항공기상 지원 서비스(global.kama.go.kr)'라는 콘텐츠로 작년 4월부터 정규서비스 중이다. 현재 7개 국적항공사는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 취항하는 70여 개 외국항공사까지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2013.7)]

### ◆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지난 12월 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각 부처별로 제출한 정부 3.0 우수사례가 총 1,400개(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약 600기관 참여)인데, 그 중 기상청의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가 당당히 본선 12과제에 선정됐다. 본선에서는 4만여 명의 온라인 국민평가단, 전문가단, 200여 명의 청중평가단 심사를 통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기상정보의 가치 확산,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

기상청은 '글로벌 항공기상 지원서비스' 개발을 통해, 외국 유료 항공기상서비스를 대체할 국내 독자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전 세계 항공로를 지원하는 글로벌 범위의 효율적 자료검색 기능으로 수요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상예측모델을 기반으로 국민이 여행하는 항로 및 전 세계 200여 공항의 기상예측모델을 지원한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운항관계자는 더욱 편리하게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연·결항·계획 변경 등 비정상운항의 최소화로 여행객은 더욱 안전하게 항공여행을 즐긴다. 셋째, 신속한 기상정보와 예측모델 제공은 기상으로 인한 지연·결항을 줄여 보다 경제적인 항공운항도 지원한다(결항, 회항 등 비정상운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비용 연간 1,258억 원 추산/국토교통부, 2013). 나아가 국내 민간사업자는 공유된 자료와 고급 IT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서비스를 통해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항공기상 예측기술이 미흡한 개도국에는 우리가 생산한 예측모델을 지원하여 기상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상청의 새로운 생각에서 출발한 창조적 기상서비스가 국민편의와 안전, 그리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해본다.



나홀로씨의  
'30년 솔로 인생'  
외길 회고록

2014,  
솔로의  
역습이  
시작되다

Z Z Z



● ● 핸드폰 통화목록을 봤다.

여자에게 걸려온 전화라곤 모두 어머니뿐. 전화번호부의 남자 이름 끝자를 모두 '희'로 바꾸었다. 이전 전화가 와도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

● ●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쪽에서 연인들이 두 손 꼭 잡고 뛰어오고 있다. 씩씩 미소를 지으며 닫힘 버튼을 꾸욱 눌렀다.

● ● 전철을 탔다.

내 왼쪽엔 여자가 앉아있고, 그 앞엔 그녀의 남자친구가 뽀뽀하며 서있다. 그때 내 오른쪽 사람이 일어났다. 그 커플은 내가 옆으로 비켜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살며시 눈을 꼬옥 감고 제자리를 사수했다.

● ● 극장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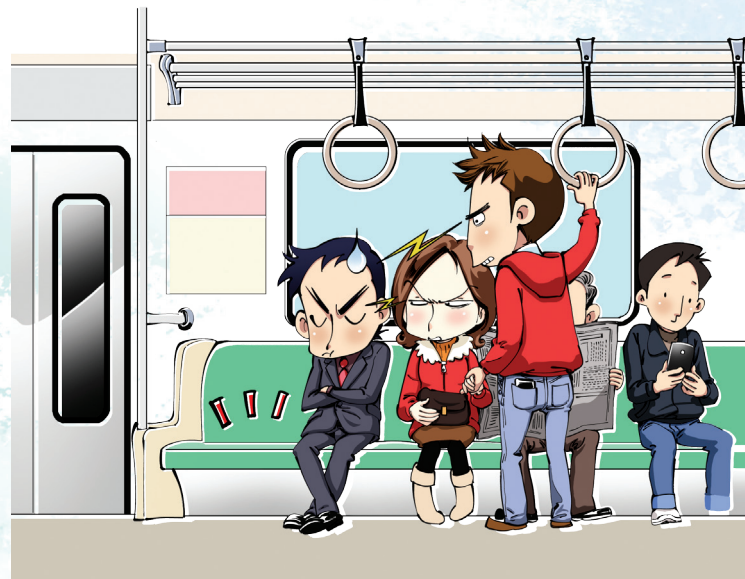
한 커플이 와서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한다. 서로 떨어져 보게 됐다면 안 쓰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난 더욱 처절한 표정을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 ● 새파란 후배 녀석의 결혼식에 갔다.

축의금을 내고 식권 세 장을 받아냈다. 그리고 혼자 피로연장에 들어가면서 그 식권 모두를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무척 기뻐하며 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 ● 멋진 차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당장 36개월 할부로 새 차를 뽑았다. 그런데 지금은... 옆자리에 뽀로로라도 태우고 싶은 심정이다. 그나마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보다 기름값이 더 무섭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 ● 화창한 주말에 바람 좀 쐬러 남산으로 갔다.

그곳엔 온통 사진 찍어 달라고 달려드는 커플들 뿐이었다. 난 순수한 의도로 갔는데, 남산은 내게 배신을 안겨주었다.



● ● 면접을 보러갔다.

면접관이 학창시절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여자관계'라고 답했다. 면접관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서라고 말했다.

솔로 인생 어언 30년. 주위에서 마술을 부릴 수 있냐고 물어온다. 정말 마술을 부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밤마다 독거노인이 되는 꿈 따윈 꾸지 않고, 어여쁜 애인과의 알콩달콩한 사랑을 꿈꾸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얼어 죽을 세상의 화려한 싱글이 아닌, 따스한 세상의 초라한 커플로 변신하는 마술을 당장이라도 부려보았을 텐데 말이다.

그래도 이런 굴욕의 세월을 지나, 드디어 대망의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아~ 가슴을 후벼 파던 2013년이 갔으니 이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2014년을 맞이해야겠다.

사실 작년 이맘쯤에 계획했던 일들이 참 많았다. 취업, 대학원 입학, 다이어트, 금연 등등! 정말 의지의 한국인답게 다 이뤄내서 스스로도 참 뿌듯한데... 딱 하나, '솔로탈출'에는 실패했다. 이런 걸 '상처받은 영광'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2014년 목표는 오직 한가지다. 바로, 무조건 솔로탈출! 이전 통화기능이 있는 시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무료통화가 남아 말일만 되면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마땅히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혜택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 이전 정말 그만하고 싶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솔로탈출의 기회를 아쉽게 날려버렸던 그 순간순간이 다 떠오른다. 귀찮다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마음에 들어도 용기가 안 나서 주저주저하던 그 모습! 이전 정말 바뀌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나이가 드니,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생의 짝을 찾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 대입, 취업, 승진 준비할 때의 그 열의! 2014년엔 솔로탈출에 맹렬히 쏟아부어야겠다.

*'경마의 해'인 만큼 열심히 걸주하여, 부디 이 기묘한 소원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길 베나이다~ 베나이다!*

# 직원들이 선택한 '깊고 싶은 간부'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5일 동안 본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주무관 177명을 대상으로 '깊고 싶은 간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장급에서는 김영신 기획조정관과 이우진 예보국장, 과장급에서는 김영동 운영지원과장과 나득균 관측정책과장, 유상진 인력개발담당관이 각각 선정되었다(가나다순).

'리더로서 꼭 필요한 부분'을 묻는 조사에서는 적절한 업무 분장으로 직원의 능력 활용과 일처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야근 줄이기 등에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받고 바람직한 간부 공무원의 모델을 발굴·제시하고, 활발한 내부 소통 및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였다.



김영신 기획조정관



이우진 예보국장



김영동 운영지원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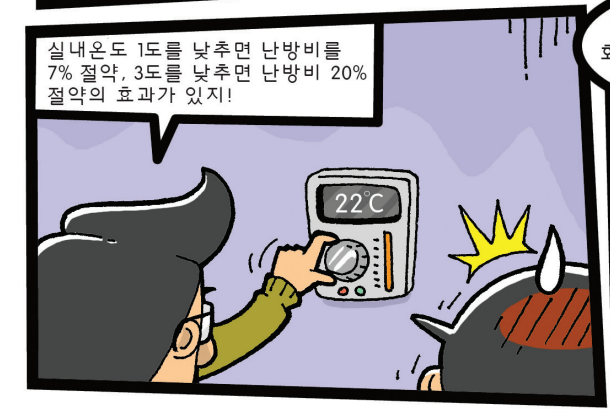
나득균 관측정책과장



유상진 인력개발담당관



**내리마음**  
33. 난방에너지지수



### 창조개혁기획단 출범(12.12)

고윤화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상조직의 혁신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개혁기획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진단 및 평가, 신사업 발굴 등에 본격 착수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 행복한 김장 나눔(12.3)

2014년도 홍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홍보실무단 워크숍」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담근 김치는 양평군청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었다.



### 제12차 한-중 기상협력회의(12.3~7)

고윤화 청장은 중국기상청에서 개최하는 협력회의에 참석하여 1998년부터 추진해 오던 양국의 기술 교류 강화 방안, 전문가 파견과 정보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6기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12.6)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발랄한 재치로 올바른 기상정보와 정책을 전달해주는 블로그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KBS '나눔이 행복입니다' 출연(12.24)

고윤화 청장은 특별 생방송에 출연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전달하였다.



### '다락방' 100회 특집 공개방송(12.27)

기상청의 주요 정책과 휴머니즘 있는 소식 등을 전하는 사내방송 '다락방'이 100회를 맞이하여, 공개방송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 민군기술협력시범사업 공동업무 협약(12.27)

기상청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성충권 장기제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 이번 달 퀴즈

1. 온라인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넘으면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는 제도는?  
① 자유학기제    ② 게임시간 선택제    ③ 대체휴일제    ④ 섯다운제
2. 노력보다는 운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① 우공이산    ② 와신상담    ③ 운칠기삼    ④ 삼고초려
3. 2014년은 갑오년 '00의 해'인데, 00에 들어갈 말은?  
① 청마    ② 백마    ③ 흑룡    ④ 백호

-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① 대한민국 지식대상
  2. ② 오클랜드
  3. ③ 파주기상대
-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이미라(서울)    2. 박주열(경기)
  3. 유미경(충남)    4. 박태진(강원)
  5. 김영자(대구)



##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2.30	기상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민현주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기상사무관	김용석
			이천기상대	행정사무관(팀장)	김병관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대장)	김용진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상사무관	김희철
퇴직	12.31	기상청		기술서기관	유민수
					김태룡
					오용해
공로연수	1.1	광주지방기상청	여수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박남철
파견근무	1.6	기상청	청조기획과	기상연구관	심우성
					오미림

목돈 전세금 마련 걱정 뚫!  
전세금 떼일 걱정도 뚫!

# 전세금안심대출

전세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전세금안심대출”이란?

한 개의 상품 가입으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대상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 침해가 없는 물건)

### ■ 신청인 요건

- 전세금의 5% 이상을 납입한 19세 이상의 임차인

### ■ 대출/보증기관

- 우리은행 (2014. 1. 2부터 시범실시)

### ■ 대출요건

-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그 외 지역 2억원 이하)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날인한 전세계약 일 것  
- 주택의 선순위채권(집주인 담보대출)이 집값의 60% 이내 일 것  
- 주택의 선순위채권(집주인 담보대출)과 전세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 일 것  
(아파트 90%, 오피스텔 80%, 기타 70%)

### ■ 대출(보증) 신청시기

- 전세계약체결일 부터 ~ 입주일 및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 ■ 전세금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②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 금융비용부담율 : 보증신청인의 연간인정 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 차지하는 비율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 담보제공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

### ■ 대출금리

- 협약 금융기관(우리은행) 대출금리에 따름

### ■ 보증료

- 전세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197%

- 전세대출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05%

- 보증료 2년치 일괄 납부 또는 연단위 분납

\* 전체 LTV(집주인담보대출+전세보증금) 70% 이하는 보증료 10% 할인,  
전세 LTV 70~80%의 경우 보증료 5% 할인

### ※ 전세금안심대출은,

- 은행 지정 한번 방문으로 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 및 대출, 보증의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존 대출상품에 비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전세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4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무료

엄마! 예방접종이  
무슨가 됐대!

“넌 더 건강해지고  
엄마는 더 웃을 수 있게!”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 부담금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 2014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누가 해당이 되나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혜택은요?

2014년 1월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은 11가지 국가예방접종  
비용전액을 지원해 준대요~!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Td, Tdap, Hib까지  
11종이나 무료 혜택을 받게 됐죠!

- DTaP-IPV(코모백신)으로 접종시 접종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의료기관 검색 등 관련문의는 관할보건소, 보건복지 콜센터(129)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이용하세요.